

예술을 존중하는 개성 있는 기획으로 거듭나라

2003년 양악의 동향을 말하다

글_이석렬 음악평론가

올 한 해 동안에도 양악 부문에서는 수많은 공연 행사가 열렸다. 연 5천 회에 달하는 양악공연 행사가 펼쳐지는 와중에 예년과 다른 몇 가지 차이점이나 현상들이 나타나기도 했다. 『문예연감』을 통한 작곡과 기악, 성악, 오페라 등 각 부문들간의 통계가 아직 나오지 않은 시점에서 필자는 올해의 특징이나 인상적인 사건들을 정리해 보았다. 올 한 해 동안 있었던 특징들과 사례들을 통해 2003년 양악 부문의 동향을 정리해 본다.

초대형 공연들의 등장과 초고가의 입장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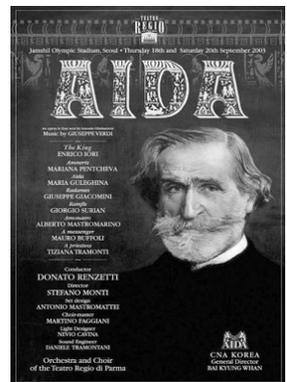
본래 오페라는 대형 극장을 위한 공연형태다. 그런데 그런 오페라 공연들이 올해 국내 무대에서는 더욱더 몸체를 불러 공연되었고 화제가 되었다. 화려하고 웅장한 볼거리가 제공되는 공연들은 사람들을 기대에 가득 차게 한다. 그렇지만 막상 공연 속 세세한 면들은 정연하지 못하고 과도한 입장료를 내야 함은 부정적인 인상을 낳기도 한다.

5월 8일부터 11일까지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에서는 중국의 장예모 감독이 연출한 <투란도트>가 공연됐다. 그때 무대의 높이는 48m, 그 폭은 무려 150m로 세계 최대를 자랑했다. 출연진도 680명 정도나 되었다. 주최측에

서는 화려하고 비싼 볼거리를 제공하며 VIP석의 가격이 50만원에 책정했다. 그보다 싼 표 값들은 30만원, 25만원 순이었고, 시야 장애석이 3만원이었다.

이날 초대형 무대 세트에서 비춰지는 환상적인 조명은 압권이었다.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마이크를 사용했기에 가수들의 순수한 목소리 전달에는 무리가 있었다. 세 시간짜리 오페라에 50만원이 웬 말이라고 언론에서는 떠들기도 했으며, 이런 표 값은 선진국에서의 야외 오페라 공연보다도 비싼 것이었다. 어쩌면 한국적 소비형태가 빚은 한국적 현상이랄 수도 있었다.

곧이어 이보다 더한 입장료로 국내 클래식 공연 사상 최고가인 60만원짜리 티켓이 등장했다. 9월 18일과 20일 잠실 올림픽 주경기장 야외무대에서 펼쳐진 베르디의 오페라 <아이다>는 입장료 최고 가격이 60만원이었다. 해외여행 등을 경품으로 내건 각종 이벤트에 화려한 무대기획은 <투란도트>에 뒤지지 않았다. 100미터 길이의 무대와 1,500명의 출연진, 거기에



<아이다>

90마리의 말과 코끼리, 낙타 등이 등장하는 스펙터클이 국내 공연 사상 정말로 진기록을 수립한 것 같다.

그렇지만 이런 대형 공연들이 쓸쓸한 뒷맛을 남긴 것이 사실이다. 그 문제점들은 이런 것이었다. 비쌀수록 잘 팔린다는 고

가의 수입품들처럼 음악문화에서도 그런 소비 성향이 바람직한 것일까! 그런 공연들의 대형 규모나 화려함이 예술적으로 충분한 당위성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이런 형태들이 베르디와 푸치니도 동의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무대였던가!

언론 매체들은 이런 대형 공연들을 연일 대서특필했다. 그리고 대다수 공연은 '세계 최대'를 자랑하는 그런 공연들 때문에 상대적 위축감을 많이 느꼈다고 한다. 혹자들은 이제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비싼 클래식 음악 공연 국가가 되었다고 비꼬기도 했다.

자기 지방의 음대생 연주에 귀를 기울여주는 유럽의 부부들같이 음악은 생활 공간에 녹아 있어야 한다. 작은 교회나 살롱에서도 예술적 가치는 대형 스타디움에 뒤질 이유가 없는 것이다.

뮤지컬이 장사가 되니 자연 뮤지컬의 직수입이 많이 이루어진다. 산업적 측면에서 보면 오페라 공연의 대형화가 뮤지컬의 붐과 관련을 갖는다고 한다. 오페라를 직수입 브랜드처럼 여겨서 과잉 소비를 조장하는 것은 재고해 볼 일이다. 그리고 일류 브랜드와 화려함이 뒤섞이면 유난히 약한 모습을 보이는 한국 청중들도 자성을 할 필요가 있다. 성숙한 시민들이라면 그런 공연들의 역기능도 한번쯤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그보다는 새로운



〈투란도트〉

소재, 다채로운 표현방식 등 우리들 문화역량을 가꾸는데 더 많은 관심이 필요했던 한 해였다.

2003년의 국제 음악제들

예년과 비교할 때 2003년은 세계적 차원의 음악제가 많이 열린 것이 특징이었다. 시간순으로 보면 3월에 열렸던 『통영국제음악제』가 가장 먼저였다.

남해 바다의 아름다운 자연, 풍부한 문화유산이 조화를 이뤄 '꿈'이라는 주제에 '음악과 종교'라는 부제를 달고 『2003 통영국제음악제』의 막이 올랐다. 세계적인 작곡가 윤이상을 기리기 위해 1999년부터 시작된 이 행사가 올해는 규모와 다양성 차원에서 더 확장된 모습을 보였다.

우선적으로 주빈 메타가 이끄는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협연 장영주)와 하인츠 홀리거가 이끄는 앙상블 모데른 등이 통영을 찾아 이 행사를 빛냈다. 그 외에도 후고 볼프 현악4중주단, 상트 페테르부르크 합창단, 국립국악원 정악연주단, 남해안 별신굿의 공연 등이 음악과 종교의 관계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그리고 윤이상의 오페라 〈꿈〉이 그의 고향에서 공연된 것도 좋은 기획이었다. 국립오페라단과 빈 현대오페



『2003 통영국제음악제』

세상이 변하는 모습을 잘 알아야 할 때다. 그리고 문화를 사랑하는 마음과 알찬 기획이 어우러져 개성 있고 아름다운 음악회를 양산해야 할 때다. 세계 최고의 입장료를 주고 음악회를 간다고 해서 귀에 들려오는 음악이 그만큼 풍요로워지지 않는다.

라단(정치용, 미하엘 클라 지휘)이 작곡가의 고향인 통영에서 오페라 <꿈>을 무대에 올렸다.

4월에 들어와 여성 파워를 지향하는 국제 음악제가 서울에서 열렸다. 『2003 세계여성음악제』, 세계의 여성 음악인들이 결집해 세계 평화를 염원하며 현재의 음악을 확인하고 미래의 음악을 조명하는 대규모 페스티벌이다. 한국여성작곡가회(회장 이찬해)와 국제여성음악인 연맹이 공동 주최한 이 음악제에서 전세계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23개국 작곡가들의 작품 70여 편이 소개됐다.

장소도 다양해 4월 8일부터 12일까지 예술의전당, 호암아트홀, 이화여자대학교, 국립중앙박물관, 경복궁 등 10개 공연 장소에서 오케스트라, 실내 오페라, 국악관현악, 전통음악회, 세미나, 워크숍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펼쳐진 국제 행사였다. 이런 행사는 음악학자, 연주자, 작곡가 3자가 함께 만들어가는 행사이기에 더욱 뜻이 있다.

세계의 여성들은 워크숍과 세미나를 통해 문화적 맥락에서 음악들을 분석해 보기도 했다. 뜻깊은 초대도 이루어져 음악제 기간 동안에는 여성복지단체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나 복지시설에 있는 여성들도 초청됐다. 개막 공연의 수익금 전액은 여성단체에 기부됐다.

『2003 세계여성음악제』는 올해가 네번째라고 한다. 그리스, 이탈리아, 영국에 이어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열린

세계여성음악제였다. 금년에는 ‘여성 음악인의 목소리’라는 주제를 갖고 무려 300여 명의 음악인들이 참여했다. 폴리처상 수상자인 작곡가 슈라미트 란, 스위스의 앙상블 안티포데, 일본의 앙상블 코지, 재독 피아니스트 임화경 등이 대표적인 초대 손님이었다.

『대구국제현대음악제』(감독 이철우)는 6월 24일부터 26일까지 대구 청소년수련원과 계명대학교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 음악제에서는 젊은 음악인들의 모임이 더욱 강조되는 게 특징이다. 대학 신입생들을 위한 현대음악 입문 과정이 있었고 서예와 현대음악이 만나는 퍼포먼스도 있었다.

일본 작곡가 곤도 조(Kondo Jo)가 초청 작곡가로 음악회를 열었고 그룹별 토론회도 마련됐다. 마지막날인 26일에는 세계 젊은 작곡가들의 작품에 대해 워크숍이 열렸다. 여기에는 그리스, 일본, 캐나다, 한국의 작곡과 학생 등이 참여한다. 감독을 맡은 이철우 교수는 『대구국제현대음악제』를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학생음악제로 발전시키겠다고 한다.

그 일련의 작업으로 올해 제13회 음악제를 세계의 젊은 작곡가 작품 발표회로 시작한 것이다. 많은 나라의 젊은 작곡가들에게 참여를 유도하고 워크숍을 통해 세계 젊은이들의 동향을 체험하는 프로그램도 염두에 두고 있다.

지난 7월 11일에서 15일까지 서울대학교의 음악대학

예술관 콘서트홀에서는 다섯 번의 콘서트와 일곱 번의 세미나로 이루어진 『오디오 아트 페스티벌(Audio Art Festival)』이 열렸다. 이 페스티벌은 새로운 형태의 음악들을 국내에 소개하고 발전시키자는 의도로 시작됐다.

작곡가 이만방의 〈여창과 피아노를 위한 가곡 '악장'〉, 성세인의 〈절벽〉, 이신우의 〈아날로지〉 등의 작품이 발표되었고 박창수의 즉흥연주 무대, 프란체스카 바우만의 보디 센서 전자음악, 기타 프리 재즈적인 즉흥연주들도 발표되었다. 주최측의 얘기로는 이런 종류의 음악들을 한국 음악계에 소개하는 데 많은 의미를 두었다고 한다.

8월 12일부터 20일까지 『제주국제관악제』가 열렸다. 이제는 꽤나 유명해진 『제주국제관악제』였지만 '사스' 공포로 세계가 겁을 먹었고 대회의 성공이 불투명했다. 참가를 약속했던 단체와 연주자들이 '사스' 때문에 줄줄이 취소 통보를 해온다는 소문도 들렸다. 그렇지만 결과는 예상보다 좋았다.

올해의 주제는 '섬, 그 바람의 울림'이라는 제목이었다. 관악이 지닌 대중성을 바탕으로 해서 전문성 역시 함께 추구하는 축제가 마련되었다. 일단 이 음악제의 준비성과 실행이 예년보다 더욱 조직화됐다는 평가다. 제주공항에는 '제주국제관악제 안내소'가 새로이 생겨 여행객들의 시선을 끌었다.

방문객들에게 행사 내내 조직적인 움직임이 느껴졌다고 한다. 음악제의 조직위원회는 각 분과로 나뉘었고 분야별 책임자들이 활동하고 있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들 역시 행사의 중요한 주역이었다. 이는 음악제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도가 높아진 것을 의미한다.

시민들이 음악을 즐기는 모습도 예년보다는 고양되었다는 평이다. 가족들이 자연스럽게 음악을 즐기는 모습들은 축제에 참여하는 보다 능동적인 모습으로 비춰지곤 했다. 시민자원봉사단이 구성된 것은 이제 이 음악제

가 제주 도민들의 자부심 속으로 녹아 들어가는 징표라고 볼 수 있겠다. 아름다운 섬에 사는 도민들은 21세기 문화 중심 시대를 맞아 이 관악제의 가치를 보다 존중하게 된 것이다.

세계현대음악협회 한국지부(위원장 진규영)가 주최하는 『범 음악제(Pan Music Festival)』는 10월 30일에서 11월 4일까지 무려 6일간 열렸다. 음악제를 이끄는 운영조직이 예전보다 젊어졌으며 프로그램도 전공자들을 위한 것에서부터 일반 음악애호가들을 위한 것까지 다양하게 구성됐다.

스웨덴의 타악기 연주자 자니 액셀슨, 일본의 금관5중주단인 도쿄 익스트림 브라스, ISCM 한국 회원들의 작품 연주회, 미국 스탠퍼드대학의 컴퓨터 스튜디오팀 초청 연주회, 한국의 트리오 한 연주회 등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졌다.

9월에는 『서울국제음악제』가 열렸다. 이제 28년이라는 최장수 국제 음악제인 『서울국제음악제』에는 올해도 테너 플라시도 도밍고, 피아니스트 라자르 베르만, 슈투트가르트 방송 교향악단, 첼리스트 요요마, 소프라노 조수미, 피아니스트 백혜선, 조트리오 등이 출현해 국제적인 연주력을 과시했다.

이제 컴퓨터는 현대 시대의 중요한 창작 매체가 되었



『서울국제음악제』

다. 그 자체가 하나의 악기이자 녹음실로서 각광받게 되었다. 한국전자음악협회(회장 이돈응)는 『2003 서울국제 컴퓨터음악제』를 문예회관 대극장과 크누아홀에서 11월 8일에 시작해서 12일에 막을 내렸다. 이 음악제의 특징은 인터넷을 통해 세계 각지의 컴퓨터 음악들을 공모하고 발표한다는 데 있다.

올해의 경우 세계 컴퓨터 음악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독일전자음악협회(DEGEM)와 현대음악 연주자 윌리엄 포먼 등이 초청되어 연주회를 가졌다. 그리고 그 동안 발표됐던 국내 작곡가들의 대표적인 작품들이 다시 회고돼서 창단 10주년을 기념하기도 했다. 작곡가 황성호, 장재호, 한옥미, 김규동, 이돈응, 안두진 등의 작품들이 연주됐고, 세계 각국의 테이프 음악, 오디오-비주얼을 위한 음악회 등 모두 일곱 번의 음악회가 열렸다.

국내의 다양한 페스티벌들

이상은 국제적 차원에서 준비됐던 페스티벌들이었다. 이제는 국내 음악 페스티벌 및 대규모 축제들을 살펴보자.

9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 동안에는 새로이 문을 연 대구오페라하우스에서 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성공을 기념하는 『2003 대한민국창작합창축제』가 열렸다. 이 대회는 음악단체가 아니라 대구광역시가 주최한 것이 인상적이었다. 이는 도시의 행정적 차원이 문화적 차원에 다가가는 모습을 보여준다.

새로 생긴 깔끔한 외관의 극장에서 대구지역의 국제 행사 성공을 기념하는 음악제가 열렸다. 우효원, 전재현, 진규영, 윤상열, 이건용 등의 엄선된 한국의 창작 합창곡들이 연주됐다. 3일 동안 강릉, 광주, 대전, 김해 등 전국 각처의 시립합창단들과 서울 모테트 합창단, 스페인 밀레니엄 합창단 등이 참가했다.

9월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간 『제1회 죽산 무천 현대

음악제 페스티벌』이 'Out of cage'란 제목으로 열렸다. 올해 처음으로 열린 이 페스티벌은 무천캠프 예술감독인 김아라의 제창으로 생긴 것인데, 앞으로 한국의 순수 현대예술의 중요한 메카로 자리잡겠다고 한다. 올해는 작곡가 김기영, 프란시스코 펠리치아노, 박영란 등의 작품들이 발표됐다.

『죽산 무천 현대음악제 페스티벌』 역시 자연과 함께 한 분위기를 강조한다. 음악과 호수, 석양에 비친 조형물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곳,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자 하는 소리와 행위, 그리고 미술과 설치 등을 포함한 총체적인 현대예술 축제를 꿈꾼다고 한다. 현대음악은 물론이고 미술가 윤 루시아, 설치미술에 정하응, 기타 현대무용 등도 함께 어우러져서 관객들과 에너지를 주고 받는 열린 형식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아마도 가장 많은 인원을 동원하는 축제로는 예술의전당이 주최하는 『교향악축제』와 대한민국의합창총연합회가 주최하는 『한국합창제』가 있을 것이다. 두 행사는 각각 3월과 11월에 열려 예년과 유사한 모습들을 보여주었다.

올해 『제15회 교향악축제』는 청중 동원에서 어느 정도 성공한 모습이었으나, 각각의 교향악단들이 자신만의 색깔과 멋을 만드는 차별성 차원에서는 미흡했다. 아울러 한국 작곡가들의 창작품들을 청중들에게 소개한다는 차원에서도 인색한 모습이었다.

『제26회 한국합창제』는 11월 1일부터 22일까지 모두 5회의 음악회로 공연됐다. 올해도 대학 합창, 초등학교 합창, 일반 합창, 소년소녀 합창 등 연령과 성별 등으로 나뉘어서 행사가 펼쳐졌다.

한국의 소재와 정서들이 작품들로 탄생하다

올해는 지긋한 경륜을 지닌 한국의 작곡가들이 한국 고유의 정서와 이야기를 담은 작품들을 여러 차례 발표

했다. 이영조의 창작 오페라 <목화>는 8월 7일에서 9일까지 대구오페라하우스에서 공연됐다. 이 작품은 대구오페라하우스 개관 기념작으로 대구시립오페라단이 위촉한 작품이었다. 제1막에서는 고려시대의 문익점이 현대의 인물로 환생해서 이탈리아로 의상 디자인을 공부하러 가기도 하는 등 상상력의 폭이 넓은 작품이었다.

지난해 11월에 발족한 한국예술가곡진흥위원회(공동대표 김남조, 최영섭)는 4월 12일 '우리의 시, 우리 노래' 라는 제목으로 음악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연에서는 김순애, 김규환, 최영섭, 김동진, 이영자 등의 가곡이 연주되었다.

한국작곡가회 부회장을 역임한 작곡가 정영택은 그의 가곡집 <백자>를 출간했다. 이 가곡집은 작곡가가 현직 교사로 재직할 40년 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졌다고 한다. 우리 고유의 정서를 쉽고 즐겁게 부를 수 있는 생활가곡만을 모은 이 가곡집은 음반과 책자로 동시에 만들어졌다. CD 두 장 중 한 장에는 본래의 반주와 가곡이, 다른 한 장에는 실내악 반주만으로 구성해 교육적 효과를 높였다.

경북 김천에 머물며 자연을 벗삼아 작곡활동에 전념하고 있는 서정과 작곡가 이안삼의 세번째 작품 모음집도 음반으로 만들어졌다. 거기에는 <내 마음 그 깊은 곳에> <비> <초록빛 물소리> 등의 작품이 담겨 있다.

제주도 음악인으로 유명한 강문철의 가곡은 한국의 전통가곡과 제주의 민요적인 특성을 조화시켜 <민요풍의 아리아>라는 새로운 개념에 접근한다는 평을 받는다. 지난해 말인 12월 12일 제주문예회관에서 16곡의 가곡을 <강문철의 가곡 세계>라는 테마로 발표해 박수갈채를 받았다.

기타 의미 있는 경우들의 발현

이제 음악문화는 대도시나 전문 연주회장을 벗어나 아

마추어들과 자연 속으로도 녹아들고 있는 느낌이다. 한국의 IT 산업의 메카인 테헤란로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직장인들이 모여 테헤란벨리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만들어져 올해 창단 연주회를 가졌다. 물론 전공자들은 배제하고 순수 아마추어들로만 구성된 오케스트라다.

경륜과 해박한 지식의 음악 평론가 한상우는 「기억하고 싶은 선구자들 - 한국양악인물사」(1권)를 출간했다. 저자는 우리나라에 서양음악이 들어온 지 120여 년이 남짓한 이제 과거 음악인들이 걸어온 길을 정리할 필요가 있음을 절실히 느꼈다고 한다. 이 책은 초창기 서양음악 유입에 대한 개설과 초창기의 음악 학교들과 그리고 초창기 음악인들에 대한 정보와 해설이 담긴 중요한 서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예술고등학교는 그 동안 음악계에서 수많은 인사를 배출한 것으로 유명하다. 올해 서울예술고등학교와 그 졸업생들은 세 번에 걸쳐 개교 50주년 기념 연주회를 가졌다. 5월 4일 호암아트홀에서 시작된 음악회에는 신수정, 이경숙, 고중원, 김대진, 장형준, 금난새, 김남윤 등 그 동안 서울예고가 배출한 유명 음악인들이 행사를 빛냈다.

그 동안 금호그룹이 후원했던 '금호현악4중주단'이 해체되었다. 기업인이 음악인들을 후원하는 대표적인 모델로 인식됐던 금호현악4중주단이 해체됨에 따라 기업과 음악인과의 이상적인 관계에 대해 여러 기사가 쓰여졌다. 음악인들에게는 이쉽고 안타까운 일이었다.

11월 11일 코엑스 컨벤션 오디토리움에서는 해군 군악대의 해군 창설 제58주년 기념 음악회가 열렸다. 이 무대에 작곡가 황성호는 2002년 6월 서해교전에서 운명을 달

리한 해군 장병들의 넋을 기리고 그들에 대한 존경과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 해군 환상곡 <황해>를 발표했다. 우리나라에서 연주되는 관악합주곡이 전적으로 외국 곡에 의지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국내 작곡가에 의해 작곡된 관악합주곡이 탄생했다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이외에도 안익태 선생을 기리기 위한 안익태 기념관이 스페인 마요르카에 완공된다는 소식이 전해져 기대를 갖게 했다. 재단법인 안익태기념재단(이사장 이강숙)은 안 선생이 생전에 살았던 스페인 마요르카의 집을 기념관으로 개·보수하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올해 문을 열 예정인 기념관은 안 선생의 악기 등 유품을 전시하는 전시관과 소규모 실내악 공연이 가능한 연주홀 등으로 꾸며진다고 한다.

변화에 발맞춘 음악회를 기대하며

이제까지 한 해 동안 펼쳐졌던 중요한 음악 행사나 동향들을 기술해 보았다. 물론 이외에도 개인들의 독주·독창회나 많은 악단들의 활동이 있었지만 아직까지는 그것들이 2003년의 중요 변화와 동향들을 구성하는 요인으로 보이지 않으며 원고 지면상 제한도 있었음을 알려둔다. 아울러 그러한 음악회들은 내년에 발간될 『문예연감』에 정리·분석될 것이므로 여기서는 분석과 기술을 하지 않았다.

이제 우리 사회의 공연기획은 보다 대규모화되고 영

리해지는 느낌이다. 물론 자본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해 기획의 이득을 극대화하는 것은 기획사의 능력이다. 그렇지만 예술에 대한 존중보다는 화려함과 고급스런 브랜드성이 우선시되는 공연형태는 지양돼야겠다.

이제 지방 도시를 다녀봐도 특정 주제를 가지고 페스티벌을 열고 있는 것을 많이 볼 수 있다(성춘향 페스티벌, 인삼 축제 등). 사람들을 불러모으고 앞으로의 기대를 낳는 페스티벌은 예술계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며 그것은 우리 음악계에서도 확산 추세에 있다. 그 의미와 알찬 프로그램 계획이 강화돼야 할 때다. 아울러 외국의 성공적인 사례들도 면밀히 검토해야겠다.

이제 직장인들이 아마추어 오케스트라를 만들고, 음악회장은 전통적인 음악회장의 개념에서 조금씩 이탈하고 있다(자연 속 공간이나 미술관 속 음악회처럼). 외국에서는 인터넷을 통해 음악 콩쿠르를 개최한다고 하며 악단을 관리하는 새로운 경영 마인드도 등장하고 있다.

정말로 세상이 변하는 모습을 잘 알아야 할 때다. 그리고 문화를 사랑하는 마음과 알찬 기획이 어우러져 개성 있고 아름다운 음악회를 양산해야 할 때다. 어쩌면 음악이란 문익점이 가져온 목화의 씨와 같아서 하나의 작품이나 한 번의 음악축제가 수많은 후예를 낳을 수도 있는 것이다. 세계 최고의 입장료를 주고 음악회를 간다고 해서 귀에 들려오는 음악이 그만큼 풍요로워지지는 않는다는 사실도 잊지 말자. ✨